

상담편지로 본 십대들의 고민

김 형 모*

- I. 머리말
- II. 십대들의 고민 분류
- III. 맺음말

I. 머리말

너무도 피로운 일이기 때문에 저 혼자 이런 피로운 일을 당하고 있는지 나의 피로움을 누구에게 확 말해 버리고 싶어요. 하지만 내가 이런 나의 피로움을 말하던 이상한 눈으로 날 쳐다볼 것 같고 친구들도 멀어질 것만 같아요. 불행한 우리집, 어느 한 사람 때문에 초조하게 우는 우리는 왜 이렇게 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희는 1남 4녀에 엄마 아빠 이렇게 생활하고 있어요. 전 모든 것에 만족하고 있어요. 하지만 딱 한 가지 피로운 일이 있어요. 저희 아버지는 우리를 매일 못살게 겁니다.

방에서 TV를 보고 있노라면 TV출을 끊어 놓고, 밥을 먹다가도 엄마만 보면 이상한 말을 해서 밥상을 덮고는 우리만 들들 볶아요.

매일 살림 때려 부수고 유리창 깨는 아버지, 아버지가 어떤 위대한 존재인지는 모르지만 아버지 한 분

때문에 우리 식구 모두 피로워 울고 있어요. 매일 술만 잡수시고 술주정하시는 아버지를 존경할 수도 없고, 차라리 아버지가 안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 모두가 행복했을까요.

언니는 매일 반항하며 공부도 제대로 하지 않아요. 하지만 저는 공부 열심히 해서 우리 불쌍한 엄마를 행복하게 도와드리고 싶어요. 지금도 엄마만 보면 눈에서 눈물이 비오듯 흘러 내립니다. 전 이세상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지만 살고 싶지 않아요. 산 위에 올라가 엉엉 울며 “아버지가 미워”라고 소리치며 죽고 싶은 생각을 한게 한 두번이 아니랍니다.

하지만, 엄마, 매일 일만 하시는 엄마, 때를 맞고도 말 못하시는 엄마가 불쌍해 도저히 자신이 없어지더군요.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만 외로이 아버지를 미워합니다. 아버지, 아버지라는 사람이 너무도 미워요. -절 줌 도와주세요- (강원도에서).

전 어릴 때부터 아버지한테 너무나 두려움을 느꼈어요. 아버지 술을 자기의 주식으로 생각하시며 술이 없는 세상은 존재하지 않는다면 언제나 술을 마셔요. 취하시면 식구들을 마구 때리고 살림살이를 마당으로 다 버리고 세월이 흘러가면 갈수록 더더욱 심해 갑니

다. 칼을 막 휘두르며 도끼로 나무를 찍으며 완전히 미친 사람 같았어요(경남에서 고2남학생).

위의 편지는 「십대들의 쪽지」 앞으로 보내온 상담편지 중 가정문제로 고민하는 편지의 일부이다.

사춘기에 접어든 3남매(10살, 12살, 14살)가 취중에 폭력을 휘두르는 아버지를 죽음으로까지 몰고간 사건이 대한민국의 서울 하늘 아래서 일어났다.

이 사건을 보고 모든 뜻있는 사람들과 자녀를 내 목숨보다 더 귀하게 생각하며 기르는 부모님들, 자라는 청소년들 모두 자기의 입장에서 나름대로의 느낌이 많았고 할 말도 많았던 것 같다. 대체로 이 사건을 바라보는 시선은 두 가지 방향으로 나뉘고 있다. 죽은 아버지의 입장에서 서서 “그래도 부모인데 자식의 도리로 그럴 수가 있느냐 자식을 위해서 부모는 더 험한 꼴도 당하고, 더 험한 부모를 모시고 사는 애들도 얼마나 많은데”하는 아이들에 대한 비판론과 “오죽했으면 어린 아이들이 부모를 그렇게 했겠는가, 어린 것들이 앞으로 살면서 느낄 죄책감과 갈등이 얼마나 클까?”하는 동정론이다.

이 문제를 굳이 청소년 문제에서 먼저 제기하는 것은 이 사건이 여태껏 우리의 부모들이 인정해 주고 싶지 않았던, 아니 인정해 주지 않았던 “자식들의 독립된 인격”을 무시한 데서 발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모들이 자식을 바라보면서 수직적이고 종속적인 입장에 서서 지배하려는 입장, 혹은 “내자식이니까 아무렇게나 대해도 괜찮다”는 식의 편견이 청소년기에 접어든 자녀들로 하여금 돌이킬 수 없는 죄의 결과를 낳게 하고 상

처를 받게 하기 때문이다.

앞에 인용한 두 학생의 편지는 슬 취한 아버지 때문에 겪는 그들의 고통을 그대로 적고 있다.

가정 안에서 싸움과 주먹으로 인한 고통이 반복해서 계속적으로 주어지다 보면 어느 상황에서 자신도 모르게 충동적인 살인의 감정을 느끼지 않으란 법이 없다.

실제로 많은 여학생과 남학생들이 매일 싸움만 하는 부모님을 보면서 차라리 아버지가 죽어 버렸으면 좋겠다 혹은 죽어 버리고 싶다는 표현을 쓰고 있다. 그들의 그런 감정을 인륜이나 도덕이란 말로만 무마하기엔 어른들의 본보기에 너무나 많은 문제가 있다. “청소년 문제”하면 대부분의 사람들, 청소년기에 접어든 자녀를 둘 셋씩이나 기르고 있는 부모님들까지도 그것은 남의 일이고, 한낱 탈선하고 방종한 생활을 하는 애들이 저지르는 일이지, 우리 아이처럼 가정의 품안에서, 양전히 학교에 다니면서, 부모 말에 순종하는 우리 아이들 만큼은 그 범주에서 빼도 괜찮다고 안심하고 계신다. 게다가 나만큼 자식 교육에 열성적이고, 개방적이며, 헌신적인 부모도 드물 것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계신다. 이것이 대부분의 부모들이 파 놓은 함정이다. 그렇다면 그 부모 아래서 자라는 아이들도 열성적이고 개방적이며, 타인에게 헌신적인 아이들로 커가야 하는데, 그런 아이들일수록 자신의 생활에 소극적이고 수동적이며, 이기적인 특성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먼저 청소년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들의 시선부터 시정되어야 한다. “청소년 문제”하면 “문제 청소년”하지 말고, 청소년 문제란 인생에서 가장 예민한 감성대를 지닌 청소년들이 자신의 주변에서 일어 나고 있

고, 부딪치고 있는 모든 크고 작은 현상들에 대해서 그들이 반응하고 수용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감정과 행동(무의식적이거나 의식적인 행동 모두 포함)이 모두 청소년 문제가 될 수 있다.

때로는 그들의 문제가 살인이나, 환각제 흡입, 가출, 자살, 강간, 폭행 등 사회악의 일면으로 표출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드러나지 않은 채 내 품안에서 탈없이 자라고 있는 내 아이가 겪는 문제를 있는 그대로 보고 그것을 문제로 인정하고 수용하려는 자세가 되어야 한다.

부모님이 무심코 한, 한마디의 기대에 찬 말, “넌 큰 아들이니까 외대는 가야지” 혹은 “누구네 아이는 이번에 장학금 받고 대학에 들어갔다더라” “넌 어떻게 된 애가 이만큼 갖추어 주었는데 그것도 못하니” …등등의 일시적이고 감정적인 말 한 마디에도 그들은 가슴을 다치고 자존심을 다쳤다고 생각해, 하고 길에 집으로 그냥 가지 않고, 전자 오락실에 들러 때리고 부수고 폭파시키는 게임을 즐기다가 거기에서 탈선한 친구들을 사귀게 되고 그 무리에 발목이 잡히게 되면 부모나 자신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길로 빠져들고 마는 결과가 생긴다.

등교길에 만나는 이성에게 관심이 가고, 호감이 가는데, 이성에 관심을 갖는 것 자체가 큰 타락이나 된 것처럼 정색을 해서 얘기하시는 부모아래서, 공부만 잘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할테니 넌 그저 다른 데 관심 갖지 말고 공부만 잘하라고 주문처럼 외워대는 부모 아래서 자란다고, 그 아이들이 이성에는 관심도 없고 오직 공부 밖에 모르냐면 그것이 아닌 것이 사실이고 진실이다.

집에서는 오직 공부만이 인생의 전부라고 외

워대지만 당장 집 안에서도 TV만 켜면 화려한 조명을 받으면서 노래하고 춤만 추면서도 십대의 우상이 되어 있는 같은 또래의 애들이 나오고, 연기를 잘해서 운동을 잘 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만 하면서도 인생을 멋지게 살고 있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가, 세상은 저렇게 다양한 직업을 가진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왜 우리 집에선 오직 공부만 강조할까 하는 의구심이 들 수 밖에 없다. 집 밖에 나서 보라. 대형 영화 간판 속에서 웃고 있는 저 사람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 싶고, 아이들이 교실에서 킁킁대며 보고 있는 저 책 속에는 무엇이 있나, 어제 저녁 쪽방에 갔다 왔다고 으시대며 얘기하는 저 애의 용감한 모습, 요즘 잘나오는 연예인에게 열심히 편지를 써 대는 저 아이, 아무리 돌려 봐도 공부만이 제일이라고 우기는 아이는 아무도 없지 않은가! 그런데 왜? 그런데 왜? 하는 의문 속에 갇힐 수 밖에 없다.

오직 공부만이 최고라는 가치의 단일화가 우리의 청소년들에게 주는 스트레스는 우리의 부모들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크다.

부모의 인생이 진리 탐구나 학문 연구에만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살지도 않으면서, 부모는 돈이다, 명예다, 쾌락이다 정신 없이 쫓아 다니면서 똑같은 감정, 아니 더 예민한 감정을 지닌 아이들에게 아무리 떠들어도 그것은 이미 ‘쇼 쿼에 경 읽기’에 지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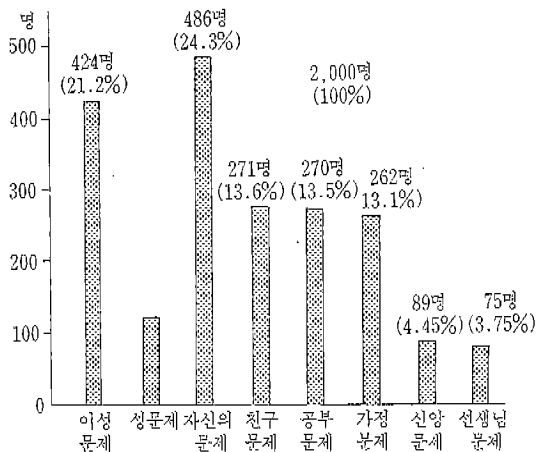
청소년 문제를 살펴보기 전에 부모와의 문제의 발생 원인에 대해서 이렇게 길게 살펴보는 것은 앞으로 나타나는 그들의 문제를 내 아이의 문제, 우리 청소년들의 문제로 있는 그대로 수용해 달라는 뜻에서이다.

II. 십대들의 고민 분류

「십대들의 쪽지」에서는 4년 동안 청소년들이 보내온 고민 상담 편지를 분류하여 그들의 고민의 종류를 세분화 시켜 왔다.

해를 거듭하면서 청소년들이 고민하는 문제가 변하기도 하고 문제에 따라서는 심각성이 더 해 가는 것도 많았다.

1989년 전국에서 보내온 상담편지 중에서 2,000통을 임의로 선정하여 분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486(24.3%)명의 청소년들이 자신의 성격이나 외모, 혹은 나쁜 습관, 혹은 인생에 목적을 갖지 못해 고민 하고 있다. 두번째로는 424명(21.2%)의 청소년들이 이성문제로 고민하고 있다. 이성문제와 아울러, 지난 해 사회 문제화 되었던 「性폭행」의 문제도 61명의 청소년들이 성폭행 당한 사실을 고민하고 있으며, 세번째로는 경쟁 뿐인 학교생활에서 친구가 없어 외롭다 혹은 친구에게 경쟁심과 열등감을 느낀다는 등 친구문제로 고민해 온 청소년이 271명(13.6%)으로 나타났다.

공부 문제는 네번째로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학생이면 으레 공부문제로 고민하는 것이 앞설 것이라는 편견을 깨고 네번째로 드러났는데 대체로 무슨 대학을 가야할지 몰라 고민하거나, 공부를 잘 하려는 계획 뿐 실천이 되지 않아서 혹은 부모님의 기대에 비해 그만큼 잘 해낼 자신이 없어 고민하는 경우가 많다.

다섯번째로는 가정문제로, 집에만 오면 답답하고 차라리 가출하고 싶고, 죽고 싶다는 이가 많았으며, 아버지의 독재나 술, 폭력, 엄마의 간섭, 형제들 간의 불화로 고민하는 청소년이 262명(13.1%)으로 나타났다.

여섯번째로 드러난 문제는 신앙문제로 교회 생활을 하여서 교회 내에서 인간관계로 고민하는 경우, 신앙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고민하는 경우와 집에서 신앙생활을 반대해서 고민하는 청소년이 89명(4.45%)으로 예년에 비해 신앙문제로 인한 고민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일곱번째는 선생님문제로 고민하는 학생들로 불과 3년 전만 해도 선생님을 향한 짝사랑만으로 고민하던 문제의 양상이, 그 짝사랑에 이어 선생님이 믿고 믿을 수 없다 혹은 선생님이 날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식으로 확대되고 있다. 75명(3.75%)의 학생들이 선생님 문제로 고민하고 있었다.

성문제를 포함 크게 8가지로 분류되는 청소년들의 문제를 청소년들이 보내온 상담 편지와 통계자료를 통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려고 한다.

먼저 통계상으로는 자신의 문제가 첫번째로 드러났지만 성문제가 결국 이성과의 관계에서 비롯된 만큼 성 문제를 이성 문제에 합할 경우, 이성문제가 가장 많은 청소년들의 고민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성문제 가운데서도 짝사랑이나, 사귀면서 자존심이 상했다든가, 삼각관계, 혹은 헤어진 이성친구가 보고 싶다는 등의 문제는 세월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해결되거나 상담 등을 통해서 해결 받는 경우가 많은데 비해 순결을 잃었다든가, 어려서 폭행을 당했다든가, 임신이 되었다든가 하는 경우는 그 상처가 평생을 가고 앞으로의 대인관계나 결혼 생활 등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문제에 심각성이 여기에 있다고 하겠다.

1. 성폭행과 이성교제, 자위행위로 인한 고민

사례1) 성폭행 당하고 나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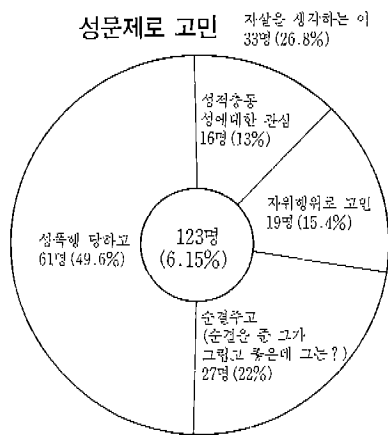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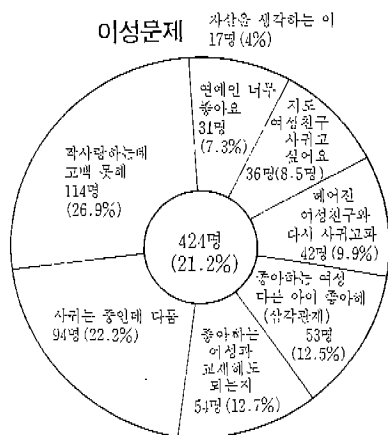
저는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순수하고 희망에 꽂차 있는 고3 소녀였습니다. 친구들의 남자친구 이야기를 재미삼아 들으며, 그들을 조금은 부러워 했던 소녀였어요. 다른 아이들이 남자친구 이야기를 할 때마다 “나도 맛있는 사람을 꼭 할거야”하는 생각도 하곤 했지요.

그러나 지금은 이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언제나 웃는 얼굴이었던 난, 웃음도 잃어버렸고 내가 그렇게 자부하였던 순결마저도 사라진 지금에 와서 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괴로울 뿐입니다.

그렇다고 난 죽을만한 용기도 없는 바보 멧덩구리입니다.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불결하고, 무섭고 남자라는 인간을 모두 죽여버리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며칠 전 일입니다. 우리반 친구의 소개로 남자친구를 만났지요. 나이는 나랑 똑같은 고3이구요. 그애는 읍내에서 알아줄만큼 공부를 잘하는 애였어요. 우리반 친구는 사귀던 남자친구가 있어서 우리 4명은 레스토랑에서 만나 이런 저런 얘기를 하다가, 나의 파트너가 된 남자 애가 어디 잘 데가 있다고 해서 물어봤더니 친구가 생일인데 여자친구를 한 명씩 데리고 오기로 했다면서 같이 가 달라고 해서 저와 제 친구는 곧이 곧대로 믿고, 따라 갔습니다.

실지로 간 곳은 그 애의 친구집이었습니다. 부모님은 나가시고, 거기에는 5명의 다른 남자애들이 있길래 진짜 생일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우리들을 폭행하기 위한 계획이었어요. 내 친구는 다섯명에게 폭행을 당했고 전 3명에게 내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 하느님께 모든 것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도 했지만 저의 신앙은 제게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눈만 감으면 그때 그 일이 생각이 나서 미치겠어요. 학교에서도 친구들과 어울려다가도 “순결을 잃은 주제에 뭐가 잘났다고 웃고 떠드느냐”고 제 마음 속에서 외쳐 답니다. 만약 아저씨가 나였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난 이런 모든 일이 남의 얘기인 줄만 알았지 실제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몰랐어요.



이 여학생의 편지를 받고 전화번호와 학교를 수배하여 학교로 여학생을 만나러 갔다. 그 일곱명의 남학생은 읍내의 인문계 고등학교에서는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었으며 처음 이 여학생을 남자친구에게 소개한 여학생은 만나지 않겠다고 하여 이 여학생만 만나서 애기 나누고 어머니를 만나러 갔다. 이 여학생 어머니의 경우도, 사실을 얘기하자, 그런 일이 신문에만 난 줄 알았는데 우리 딸이 그럴 줄은 몰랐다고 하셨다. 며칠 동안 말도 안하고 아주 신경질적이 되어 툭툭 쏘면서 머리도 단발로 짧게 자르고 해서 애가 변했다고만 생각 하셨다고 한다.

그래도 이런 경우를 당한 어머니 중 이 어머니는 상당히 수용적이었던 경우이다.

사례2) 이성교제를 하면서

저는 중학교 2학년 때까지만 해도 이성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3학년이 되면서 좋아하는 애가 생기고 부터는 이성이란 사귀어 볼만하다고 생각하는 소녀입니다. 지금도 좋아하는 애가 있어요. 그런데 좋아하는 감정이 처음과 달라진 것 같아요. 처음엔 그애랑 눈이 마주치거나, 둘이 같이 있는 것만으로 기분이 좋고 행복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애랑 같이 있으면 손도 잡고 싶고 팔장도 끼고 싶어요.

그런데 그애는 저를 좋아한 것 같으면서도 표현이나 내색을 하지 않아요. 남자가 적극적이지 못한 것이 전 무척 자존심이 상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애를 적극적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신체적 접촉을 원하는 것은 나쁜 일일까요? (수원에서 송희).

사례3) 자위행위로 인한 고민

중학교에 다니는 여학생입니다. 누구에게라도 털어놓지 않으면 미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막상 털어놓으면 창피해서 죽을 것같은 생각도 듭니다.

저는 자위행위를 합니다. 자위행위가 뭔지도 모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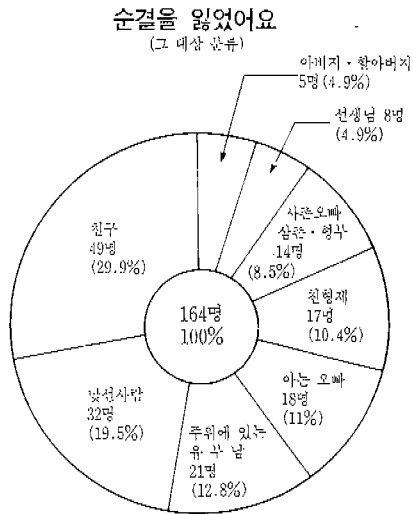
던 제가 그것을 시작한 것은 국민학교 6학년 때였습니다. 친구가 그러더군요. 그런 것이 자위행위라고 저는 정말 창피합니다. 사람들이 모두 저한테 손가락질을 하는 것 같습니다. 심대를 대상으로 하는 잡지들을 보면 자위행위를 하는 아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 저만 하는 줄 알았습니다. 전 연예소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자위행위를 합니다.

또 하나의 걱정은 처녀막에 대해서 입니다. 학생잡지에 처녀막은 자위행위로 터질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언젠가 생리기간이 아난테 팬티에 피가 묻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땐 그런가 보다 했는데 지금 생각하니 처녀막이 터진 것 같습니다. 전 이대로 결혼도 못하고 창녀나 술집 여자가 되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정말 무서워요. 전 처녀이고 싶었는데 그러면서도 전 자위행위를 멈출 수가 없습니다(서울에서 중2소녀).

자위행위로 인한 청소년의 고민은 대부분의 청소년이 자위행위에 대한 심한 죄책감과 죄의식을 갖고 그곳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해 공부와 생활에 지장을 받는 경우가 많다.

어느 부모님의 경우, 자위행위를 하는 아들을 앓혀 놓고 그런 짓을 자꾸 하다 보면 머리가 나빠지고 공부도 못하게 된다고 엄포를 놓아 이 학생을 실제로 자신은 머리가 나빠진 것 같고 공부도 떨어졌다면서 생활에 의욕을 잃은 경우가 있었다. 또 어느 남학생의 경우 생물 선생님께서 자위행위를 심하게 하면 일찍 죽는다고 했다면서 자기는 일찍 죽지만 않으면 모든 것을 다 열심히 할 자신이 있다고도 상담해 왔다.

학교에서나 가정에서 성교육의 부재는 청소년들에게 잘못된 성지식을 습득하게 하는 기회를 주고 있다. 자위행위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르쳐 줌으로 해서 청소년들이 갖는 공포심과 죄책감을 덜어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1987년도 2,000통의 편지분류 중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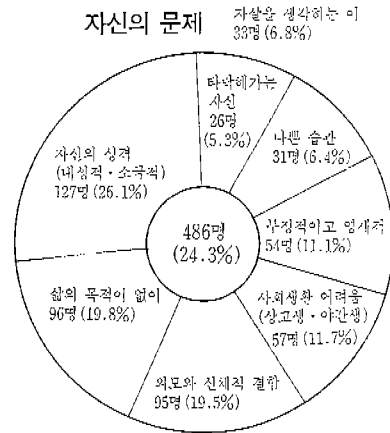
은 아직도 말하지 않는게 나온 것, 모르는게 약이라는 생각이 지배적이다.

성교육의 부재도 가장 많은 피해를 당하는 것은 역시 여학생이다. 앞에 인용한 여학생의 경우처럼 손을 잡고 싶고 팔장도 끼고 싶은 것은 자연스런 감정이지만, 대부분의 여학생들이 남자와 여자의 “성충동의 차이”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이 많다. 내가 손을 잡으면 저에도 손을 잡은 것에 만족하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이 가까운 상대에게 순결을 잃게 되는 결과를 가져 온다.

이 통계는 1987년 보내온 2,000통의 편지 중 이성문제로 고민하는 541명 가운데 순결을 잃고 고민하는 164명을 분류한 것이다. 너무나 많은 여학생들이 낯선 사람보다 주위에 있는 아는 사람에게 안심하고 있는 상태에서 순결을 잃고 있다.

성폭행이 사회문제가 된만큼 이제는 교육받지 못함으로 해서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학교에서나 가정에서의 성교육이 시급하다고 본다.

2. 자신의 문제로 고민하는 청소년



사례1) 자신감이 없는 경우

저는 제 자신이 아주 마음에 안 들 때가 많아요.. 중간 정도인 성적 때문이죠.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을 보면 말을 자연스럽게 하지 못하고 자꾸 피하게 돼요. 무슨 일을 할 때도 자유롭게 행동을 못하고 항상 “나는 공부도 잘하지 못하는데”하는 생각이 앞섭니다.

이성을 좋아해도 ‘난 다른 아이들처럼 얼굴도 예쁘지 않고 잘 한 것도 없는데’하는 생각만 듭니다.

수업시간에 책을 읽을 때에도 손이 떨리고 책이 덜덜 흔들리는 걸 보면 창피해서 그냥 주저 앉고 싶은 정도예요.

결으로 보면 아주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지만 전 정신적으로 너무나 병들어 있습니다. 왜 전 남 앞에서 다른 사람들처럼 자기 의사를 멋있게 이야기하지 못하고 모든 일에 자신감이 없을까요. 요즘은 학교 가는 것도 두렵기만 합니다”(전남 고1 소년).

자신감을 갖지 못하고 소극적으로 자꾸만 움츠러 드는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학교에서나 가정에서 좋지 못한 성적으로만 평가 받고 공부 외에 다른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장점에 대해서는 격려 받지 못하고 나쁜 성적에 대해서만 추궁 당하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패배감을 느끼게 되고 그 패배감이 모든 생활을 지

배하게 된다.

이 패배감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건전하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자신의 생활을 개척하기 보다는 부모 몰래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므로 해서 패배감을 호소하려 하고 나중에는 본드 흡입이나 약물 중독으로 이어지게 된다.

그러므로 주위에서 “넌 공부는 뛰어나지 못해도 이런 면에서는 남들보다 잘 해 낼 수 있으니 이런 면을 잘 해보자”는 의도적인 격려가 청소년들에게 자신의 인생을 새롭게 계획할 수 있고 자신감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청소년들이 그들이 갖고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묻어둔 채 스스로의 삶을 개척하지 못하고 희망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그들에게는 공부만이 다가 아닌 기능 교육이나 인간교육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본다.

사례2) 약물 중독과 본드 흡입

저는 지금까지 세상의 부정적인 모습만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동떨어진 세계에서 살아온 것 같습니다. 삶에 회의마저 느껴 두번이나 자살을 시도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열심히 살아보고 싶기에 용기내어 펜을 들어 봅니다.

제 나이 열 아홉에 세상의 모든 환각을 다 알아 버린 것만 같습니다. 중 2 때 친구들의 권유로 본드와 술 담배를 알게 되었습니다.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 진학을 하지 않게 되자 주위의 불량배들과 친하게 어울리게 되었습니다. 국민학교 때부터 복싱을 했다는 이유로 나는 이들 중에서 제일 끝발이 좋았습니다.

이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먹게 된 ‘루비킹’과 ‘너미널’이란 환각제를 지금까지 먹고 있습니다. 이 환각제는 제가 살고 있는 곳에는 팔고 있지 않아 영등포까지 한달에 여러번 왕래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위의 친구들은 대마초의 일종인 ‘마쟁이’라는 것도 서슴없

이 피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만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떡해야 제가 환각제를 먹지 않고 열심히 살 수 있을까요. 철없던 시절 한때의 영웅심리로 생긴 문신 자국과 담배불 자국, 이제는 돌이킬 수 없게 되었군요. 저에게 한 마디의 달콤한 사탕발림 보다는 진정으로 제가 환각에서 헤어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전 제 자신을 비판하길 잘합니다. 그래서 친구가 없지요. 누군가가 본드냄새를 맡으면 기분이 좋다고 해 해보았습니다. 그 말대로 좋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시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계속하다 보니 어쩔 줄 모르는 상태까지 왔습니다. 저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까? 전 지금도 제마음을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그저 담배만 뽕뽕 피우고 있고 본드 생각이 납니다(고2 학생).

난 솔직히 말해서 골초에다가 반에서는 싸움대장 술먹는 거라면 반에서는 제일 가는 아이입니다. 하루에 담배를 한갑 반을 안 피우면 몸이 뒤틀릴 정도니까요. 그러나 제 고민은 이것 뿐만이 아닙니다. 저는 중학교 때는 본드를 입에 댔고, 고등학교 1학년 때는 환각제를 입에 댔고, 요즘엔 대마초도 입에 대었습니다. 저는 악의 구렁텅이에서 벗어날래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제가 그 생활에 젖어 있기 때문입니다. 제 고민을 털어 놓은 사람은 아저씨가 처음입니다.

본드흡입이나 환각제 복용으로 환각 상태에서 살인을 저지른 사건('90.4.7 동아일보)이 있었다. 이유는 단 돈 400원 때문에 이처럼 환각제나 약물중독에 의한 문제가 신문에 기사화된 것은 병산의 일각에 불과한 것이지만 환각제와 약물중독 역시 서구의 청소년 문제가 아닌 우리 주위에 있는 청소년들의 문제요, 내 자식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돈만 있으면 누구나 손쉽게 구할 수 있는 본드나, 신나같은 것을 비닐봉지에 넣어 그것을 흡입하거나 비행기 글루나 가솔린 졸벤 등을 천에 묻혀 흡입함으로 해서 환각상태에 이르기조차고 대마초

를 피우기도 한다.

청소년기의 정신적인 특징으로 볼 때 이들이 약물에 의존하는 이유를 하나로 요약할 수는 없지만 자기의 통제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자기의 욕구에 대한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하고자 하는 성급한 심리가, 우선 순간적으로 흥분되어 평상시보다 자신감을 가질 수 있고 강한 의지력까지도 느낄 수 있는 약물에 의존하게 되는 원인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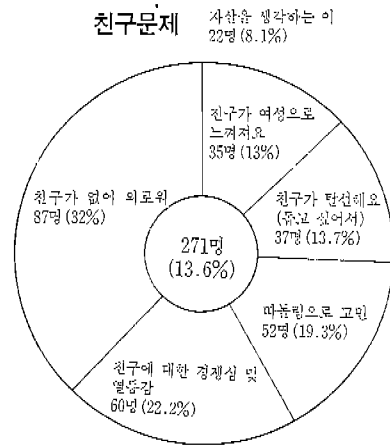
또한 청소년 개개인은 본드나 약물 환각제에 대해 꺼리고 두려워 하지만 일단 여러명이 집단을 이루어 환각제나 약물 등을 접하게 되면 대담해지고 집단에 대한 소속감 때문에 함께 하게 되며 이 집단은 이내 비행 집단으로 탈바꿈해서 범행을 저지르게 된다.

약물을 찾는 또 하나의 이유는 그것에 대한 호기심과 모험심을 들 수 있다. 청소년기는 자신의 경험의 세계를 최대한으로 넓히려는 욕망이 큰 반면에 위험에 대한 두려움은 적다. 그러므로 기회를 만나면 약물을 시험해 보고 사 용함으로 해서 자신의 용기를 증명하고 모험심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다.

다른 문제와 마찬가지로 약물 중독 역시 부모로부터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에 부딪혔을 때 알콜로써 그 문제를 도피하거나 방임하려는 아버지 밑에서는 환각제를 먹어서 자신의 문제를 망각하려는 자녀가 더 쉽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환각제나 본드 흡입이 집단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감안할 때 종전의 친구관계를 떠나 새로운 친구관계를 갖게 해 주거나, 환각제가 아닌 새로운 일에서 즐거움을 찾거나, 성취감을 느낄 수 있게 해 줘야 한다.

3. 친구 문제로 고민하는 청소년



사례1) 친구는 한명의 경쟁자일뿐

저는 8여고 2학년에 다니는 학생입니다. 저는 친구를 친구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의 경쟁 상대로 밖에 안 봅니다. 누가 아침에 와서 즐기라도 하면 "저X 또 저녁내내 공부했나 보지"라는 생각만 들고 아침에 오자마자 공부하는 아이가 있으면 죽이고 싶도록 되고, 저보다 공부 못하던 애가 잘하게 되면 살인까지 생각하게 됩니다.

친구가 옆에서 이성문제로 고민하면 "잘 됐다 난 이 틈에 공부해야지"하고 생각하며 오히려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마음은 2학년 와서 특히 더욱 심해졌습니다. 성적이 2학년으로 올라 올 때 상위권으로 와서 만장 후보에까지 오르고 첫 시험에서 반에서 이등을 했지만 그때도 일등한 애를 굉장히 미워하고 질투와 시기의 눈길로 바라보면서 미친 사람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중간고사에서 성적이 중간으로 떨어져 앞이 캄캄하고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지금 용기를 내서 다시 시작하고 있는데 저번처럼 잘 안됩니다.

저는 어떻게든지 남을 밟아 누르고 올라 서려 합니다. 그것만이 제가 살길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쟁에 이기기 위해서는 친구도 필요없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저는 친구의 우정 따위는 한 장의 휴지조각보다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열등감이 아주 심함

니다. 제 사정을 들었으니 담장 좀 해주세요(서울에서 고2 여학생).

이 여학생의 편지를 보면서 오늘날 우리의 청소년들이 얼마나 황폐하고 메마른 마음 발을 가지고 사춘기를 보내고 있는가를 한 눈에 볼 수 있었다. 결코 이 여학생만의 특수한 경우가 아니다. 부모 말은 안들어도 친구 말은 듣는 때가 청소년 시기인데 친구를 또 다른 경쟁의 대상으로 밖에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모두들 진정한 친구가 없다고 외로움을 호소할 수 밖에 없다.

학교에서 친구가 없어 혼자 외로워서 학교에 가기 싫다는 여고 2학년 학생에게 그 어머니께서 “그까짓 친구 다 필요 없다. 너만 공부 잘 해서 대학가면 더 좋은 친구들 많이 생기니까 너 걱정 말고 공부만 해라. 집에 오면 엄마가 친구해 줄게”라고 말해서 더 외로웠다는 여학생이 있었다.

그런가 하면 본인은 별로 친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부모 생각에 공부도 더 잘하고 경제적으로 더 여유있는 집 아이와 친구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에 어느 애랑 같이 다니라고 해서 반발을 산 경우도 있다.

지금의 청소년들은 친구를 나눔의 대상으로 여기진 않는다. 친구가 없어 외롭다고 하면서도 그 외로움을 옆의 친구와 나누어 가지려고 하지 않는다. 네 외로움은 네 것, 내 외로움은 내 것하고, 돌아 앉아서 이기의 성을 쌓아간다.

4. 가정문제로 고민하는 청소년

사례1) 어머니의 간섭 때문에

저희 집에서는 어머니가 왕이십니다. 아버지 바빠

시기 때문에 별로 우리를 돌보지 못합니다. 저희 엄마는 좀 신경질적입니다. 제가 공부하고 있는 데 와서는 꼭 “자니, 공부하니”, “이 놀대가리야”, “널 열 달 배부르고 난 내가 미쳤지”, “넌 어째 네 동생보다 못하니”, “저거 저X, 나가 죽어, 네가 없어야 내가 다리 쪽 뺀고 살지” 등등.

이것보다 더 심한 말도 하십니다. 한번은 제가 존경하는 선생님한테서 편지가 왔는데 어머니는 먼저 뜯어 보고 아무렇지 않게 “자 여기, 너한테 편지 왔는데 누군가 싫어서 엄마가 먼저 봤다”하면서 주시는 거예요.

어머니는 절 위해서 보셨다고 열심히 변명하셨지만 나중엔 “저X같은X이 어디서 대들어 이페까지 밥 먹여 키워 왔더니 저것이야”하시면서 화를 내셨습니다.

그덕에 저만 아버지께 혼났습니다. 어머니께서 절 위해서 보셨다는 건 잘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사례2) 집에만 오면 답답하고 싫어

전 지금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매우 지쳐 있습니다. 하루에도 서너번씩 죽음을 생각하고 자살을 생각하고 아무튼 모든 것에서 해방되고 싶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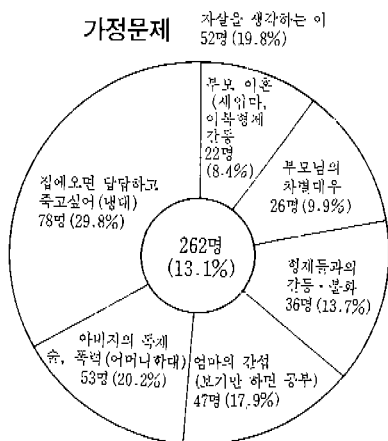
학교생활은 재미있어요. 그러나 집에만 돌아오면 숨이 막힙니다. 왜 이렇게 집이 싫을까요.

부모님께선 이래선 안된다고 간섭, 저래선 안된다고 간섭, 관심인지, 간섭인지 분간하기 어려울 때가 많아요. “반찬은 이것을 먹어라, 잠은 어떻게 자라, 학교에서는 빨리 와라, 친구들은 자주 만나지 마라” 게가 게 뜻대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서도 부모님께선 제가 이렇게 중학교라도 졸업하게 된 것이 부모님께서 애쓰신 덕이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전 그렇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가정에서 느끼는 청소년들의 고민은 부모의 “말”에서 비롯된다고도 할 수 있다. 그만큼 많은 청소년들이 부모의 “말”때문에 상처를 받고 있다.

부모와 자식간의 얘기는 분명 무엇을 얘기했느냐 보다는 자녀들이 그 말을 어떻게 들을 것



인가가 더 중요하다. 그러므로 부모는 끊임없이 나의 입장에서 말하려 하기 보다는 자식의 입장에서 그 말을 해야 한다. “내 자식이니까” 하는 안이한 생각만 가지고 자식 앞에서 아무렇게나 얘기함으로 해서 내 자식은 상처를 받게 된다.

그런데 자식들은 공부를 하라고 관심을 가지면 간섭한다고 반항, 내버려두면 무관심하다고 반항,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태에서 우왕좌왕하다가 사춘기를 보내고 어른이 되어 버린다.

부모의 경우, 자식 앞에 서서 무조건 “이길을 따라 오라”고 하거나 혹은 방관자의 입장에서 서서 “저 길을 따라 가라”고 강요만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농부가 소를 몰고 들로 나설 때는 소 앞에서 고삐를 잡고 끌고 가지는 않는다. 뒤따라 가며 고삐만 움직여도 농부는 가려고 하는 눈이나 발으로 말귀도 못 알아 듣는 소를 데리고 간다. 느리지만 잘 가고 있는 소에게 너무 자주 채찍을 가함으로 해서 고삐마저 놓치는 어리석음을 농부는 결코 범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소가 다른 곳으로 가려라고 의심하지도

않는다. 그저 묵묵히 따라가면 그 방향을 조정해 줄 뿐이다. 또한 자신이 기르는 소에 대해선 절대 함부로 말하거나 욕하지도 않는다.

자식에 대한 무한한 믿음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만이 가정에서 일어나는 문제의 해결의 열쇠가 될 것이다.

사례3) 새 엄마로 고민하는 경우

최대한 솔직해지고 싶은 마음으로 이 글을 드립니다. 전 아버지와 어머니 언니와 남동생, 이렇게 다섯 식구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친 어머니는 중학교 2학년 때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다섯달 뒤에 새 어머니가 들어 오셨습니다. 전 그 생활을 무난히 소화해 내지 못했습니다. 새어머니와 충돌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일어났습니다. 친어머니와 정반대의 성격의 새어머니가 싫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아니 이해하고 싶지도 않은 그런 생활 속에서 전 자신에게 자꾸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참아내리라 이러한 고통은 나만 겪는 것이 아니라 이날만 지나면 새로운 기쁨과 희망이 찾아오리라” 다짐했지만 소용 없었어요.

새어머니는 곧 아기를 낳으셨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전 진심으로 축하해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밋고, 추하고, 더럽게 까지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참 귀여웠습니다. 정말 사랑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새어머니와 아기에 대해서 좋은 감정은 가지려고 하면 할수록 친어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그분에게 죄를 짓는 것 같았습니다. 새어머니와 아버지가 아기를 보면서 웃고 기뻐할 때는 전 아버지가 무척 싫었습니다. 한 때는 아버지가 돌아 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전 점점 다른 길로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전 새어머니하고 말을 안하고 지내기 때문에 돈달라는 소리도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필요할 땐 친구들에게 빌려서 썼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벌써 몇 십만원이 돼서 친구들은 돈을 갚으라고 성화입니다. 전 거짓말, 사기, 도둑질 이러한 것들과 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먹는 것, 쓰는 것, 장식품 등을 모두 저의 더러운 손을 통해서 얻어냈습니다. 결국 저는 또 일을 지켰습니다. 학교를 안 가고 교회 아주머니 댁에 가서 통장을 훔쳤어요. 그러나 비밀번호를 몰라 돈을 못 찾고 말았습니다.

그 일을 아버지께서 아시곤 절 보곤 사기꾼이며 더러운 망할 종자라고 했습니다. 너 같은 것은 필요없다며 집에서도 쫓아 냈습니다. 전 집을 나왔습니다. 은근히 이렇게 되길 바랐는지도 모릅니다. 결국 제 책임이라는 걸 알면서도 전 새어머니를 미워하고 저희 아빠도 싫어합니다(서울에서).

해마다 이혼률이 증가하면서 새부모 밑에서 느끼는 청소년들의 갈등도 많아졌다. 새부모 뿐만 아니라, 이복형제들 사이에서 느끼는 소외감과 열등감 질투심은 그들이 느꼈을 절망감에 비해 더 깊고 크다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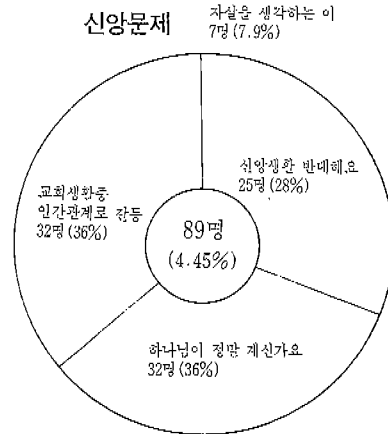
청소년들은 의지하던 사람(어머니나 아버지)이 사라진다는 두려움과 함께 자신의 보금자리가 새로 들어온 새부모로 인해 침해 당했다는 반발심 때문에 본능적으로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게 된다. 그러므로 새부모나 이복형제가 함께 하는 가정은 새부모가 아무리 배려를 해 주어도, 그에게는 안식처가 될 수 없고, 가정에서 모든 일이 상처를 주며 자신을 화나게 하는 사람이 있는 곳으로 인식하게 된다.

새부모의 입장에서도 “내 자식이라면 나무라기도 하고 때리더라도 할텐데”하면서 소신껏 교육할 수 없는 어려움을 얘기한다. 그러나 친부모든 새부모든 양육의 권한을 가진 위치에 있는 이상 바르게 기르고 가르쳐야 하는 것은 방관할 수 있는 권리이기도 하지만, 포기해서는 안되는 의무이기도 하다.

이혼이나, 재혼, 혹은 부모의 죽음이 그들에게 이미 큰 상처와 절망을 주었던 만큼, 새부모로 인한 청소년들의 고민과 갈등은 부모가

저야 할 십자가가 훨씬 크다고 하겠다.

5. 신앙문제로 고민하는 청소년



신앙문제로 고민하는 청소년들의 종교는 90% 이상이 기독교이다.

청소년들은 교회생활을 통해서 학교나 가정 생활에서 얻지 못하는 위로와 안정을 얻으려고 하지만, 중·고등부라는 단체에 속해 있으면서 그 단체활동 내에서 겪는 갈등이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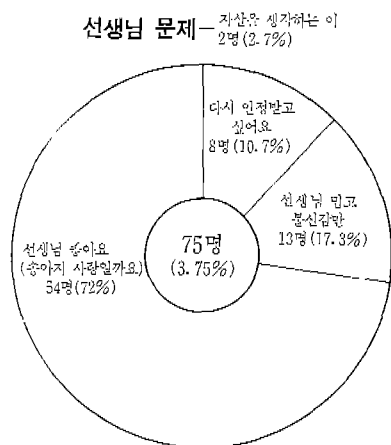
특히 과거 교회를 “연애당”이라고 비하시켜 왔던 만큼, 학교보다는 개방된 상태에서 이성을 접하게 되는 만큼 이성문제로 고민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중학교 2학년이나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는 신앙생활을 지지해 오던 부모님들이 수험생이라는 이유로 신앙생활을 반대하기 때문에 갈등을 겪는 사례도 있다.

6. 선생님 문제로 고민하는 청소년

사례1) 선생님의 체벌로 멍든 자존심

며칠 전에 저는 친구와 함께 우리반은 물론 다른 반 애들이 다 보고 있는 복도 한가운데서 선생님께 뺨을 맞았어요. 이유는 간단해요. 청소시간에 청소



안하고 다른 반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전 선생님이 싫어졌어요. 맞았다는 이유 때문만이 아니라 무시 당한 저의 자존심이 절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집이 조금만 부자였다라면, 내가 공부를 더 잘했더라면, 그래도 그렇게 폭력을 휘두를 수 있었을까? 그런 일은 충분히 말로 타이낼 수도 있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에 쌓여 선생님을 미워하고 있을 때 우리 반 애들이 선생님께 뇌물을 드렸다는 소문이 돌리자 전 선생님이 더욱 싫어졌어요. 그리고 그것이 소문이 아닌 사실이라는 것을 알았을 땐 더 했습니다.

어제는 친구와 애길하고 서 있는데 선생님께서 잠바의 지퍼를 잠그라고 하셨어요. 전 제자리에 돌아와서 잠그려고 그냥 자리로 돌아왔어요.

그러자 선생님께서 절 앞으로 부르시더니 “내가 하는 말 못 들었어? 내 말이 말갈지 않아? 네가 깡패냐?”라고 저를 꾸짖으셨어요. 그 순간 제 가슴에선 또 반항하는 마음이 타는 듯 꿈틀거리기 시작했어요.

“좋아, 자리로 돌아갈 땐 절대로 인사를 해선 안 돼” 전 그것을 실행에 옮기고 자리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선생님께서 다시 불러 신고 계시던 슬리퍼로 저를 때리셨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교탁위에 있던 출석부로 저의 머리를 사정없이 때리셨어요. 손으로 다시 저의 머리를 때리실 땐 전 정말 정신이 없었어요.

종례가 끝난 뒤에 선생님께서 절 교무실에 불러다 놓고, 오늘 있었던 일을 모두 잊으라고 하시더군요. 그렇지만 그런 걸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어요. 전 맞

았다는 사실보다 그 뒤에 일어날 일들이 더 무서워요. 아이들의 눈길과 선생님의 따가운 시선이 더 싫어요(여수에서 중3 소녀).

사례2) 선생님이 좋아요

전 여고 1년생으로 한 남선생님을 무척이나 좋아하는 철부지 소녀입니다. 저에게 선생님을 좋아하는 이유를 묻는 이가 있다면 전 섣뽕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흰칠한 키와 웃으시는 모습 등 외형적인 면만을 고집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전 그만큼 선생님에 대해 아는 것이 없습니다. 물론 저는 여고 3년 동안 선생님의 수업을 한 번도 받을 수 없는 반입니다.

저는 매주 월요일이면 선생님 책상에 제가 좋아하는 장미를 한아름 꽂아 드리며 짧은 메도를 남겨 두고 오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장미가 없어 이튿도 알지 못하는 가을 냄새가 물씬 풍기는 꽃을 한아름 사다가 꽂아 두곤는 그날 만큼은 메도도 없이 저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점심시간에 교무실엔 내려가다가 교무실 복도에서 선생님과 마주쳤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제 친구를 먼저 보내고 제게 할 말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꽂아둔 꽃이 저처럼 예쁘다고 하셨습니다. 저를 보듯이 그 꽃을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전 이때부터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저의 과대망상은 더욱 심해 갔고, 이루어질 수 없는 운명이 더욱 저를 슬프게 합니다. 선생님은 이미 결혼 하셨습니다. 선생님은 저를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선생님을 향한 그들의 사모의 정이나 호감도가 맹목적이 듯이, 체벌이나 기타 다른 이유로 인한 선생님에 대한 그들의 거부도 거의 맹목적이다.

체벌의 교육적인 효과를 논하기 전에 사춘기에 접어든 청소년들은 체벌을 통해서 변화되고 시정되는 경우는 썩 드물다고 본다. 그들은 일단 자기의 자존심을 다쳤다고 믿기 때문에 감정이 어긋나 버려 그 이후에 아무리 교육적인 훈계를 해도 이미 교육으로서의 효과는 기대하

기 어렵다.

선생님을 향한 여학생들의 맹목적인 사모의 감정도 문제가 많다. 순결을 잃은 대상 분류에서도 드러난 것처럼 성문제의 피해자가 된 여학생이 있다는 데 유의할 필요가 있다.

III. 맺음말

이상, 상담편지 분류를 근거로 하여 청소년들이 보내온 상담편지를 중심으로 그들이 생활에서 부딪치는 문제들—어른들이 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반응하는가를 살펴 보았다.

청소년 문제에 대한 접근은 교육학적인 이론이나, 논리보다는 그들과 같은 마음이 되어 같이 느끼고 같이 아파해 주려고 하는데 문제의 해결 열쇠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부모나 교사는 이미 그 과정을 ‘지나

와 버린’ 어른이기 때문에 그 감정으로 되돌아가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그러나 좀더 그들을 구체적으로 알려고 하고 이해하려고만 하면 역시 그 과정을 거쳐 왔기에 거치지 않은 사람보다는 더 쉽게 그들에게 가까이 갈 수 있을 것이다.

나에게는 아픔이 되지 않는 작은 문제도 그들에게는 생명을 포기할 만큼 큰 아픔이 되기도 하고, 내 자식을 떠나 모든 청소년을 위한 마음 씀씀이가 결국 그 속에 있는 나의 자식까지도 보호할 수 있다는 마음자세를 가졌으면 한다.

청소년 문제는 하루 아침에 어떤 한 사람이 개혁의 깃발을 들고 나섰다고 해서 개혁되고 개선되는 것은 아니다. 앞으로 청소년 문제가 더욱 심각해져 갈 것은 분명하다. 그런만큼 그들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 역시 더 열려야 하고 더 연구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